



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배부시리라 민수6.26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교보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송



(후렴)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 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 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 루카 2,16-21

성가 입 당 112 예물준비 44
영성체 98 파견 258

미 사 봉 헌

연미사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학순
한시찬 라파엘
조태연 안토니오

봉헌

김지영 유스티나
박혜화
가족
조우진

생미사

유데이빗, 유데니엘, 유케이디
박영순 아가다, 정모경 스텔라
정다경 마리아 영명일 축하
서연년
조어거스틴, 카타리나와 가족들
이정주 소화데레사 가정
조남록, 조성자 가정
김영희 베드로, 김유화 데레사
김민아 엔젤리카 생일 축하
백승민, 진달래 가정
유베네딕도, 진스콜라스티카 가정
김동광, 김비비안나 가정
김스콜라스티카, 김베네딕도
김승한 어거스틴 생일

봉헌

유희순 그레이스
정다경 마리아
우리 즐거움의 원천
익명
익명
이은경 헬렌
이은경 헬렌
이명숙 루시아
하늘처럼 성가대
대모
익명
익명
부모
노희정데레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월 1일	이영노	민완준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한서희 최예준 김민규 양지수 김승현	
1월 8일	이지훈	백승민	김승연	김승연	양미숙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건진성사 축하드립니다.**

권엘라 미카엘라 남지혜 크리스티나
박성환 바오로 정서희 데레사



▶**오늘, 새해 첫날**

09시 15분 미사후 더 큰집, 원조에서 떡국 봉사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Cash \$ 400 강명옥 정민영 안상민 정희자
	Check \$ 800 최은자 표해심 김영희
특별헌금	Cash \$ 100 익명
2차헌금	Cash \$ 393
합 계	\$ 1,693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

미사 : 1월 22일(주일), 09시 15분
신청 : 미사 후 친교실-연령회담당자
마감 : 1월 15일(주일)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2023년 사목협의회 첫회의** 1/8(일) Conf. Rm(2F)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 드립니다.
*신청:사무실

▶**고해성사 없습니다.** 1월 22일까지

▶**미사전 일찍 도착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 준비 합시다.**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시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고 해설자와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뵈기 위한 마음 준비를 합니다.

▶**2023년 성지 순례단 모집- 이태리 로마, 아씨시**

출발: 2023년 6/18(일)저녁- 도착: 6/23(금)오후
신청마감: 1월10일까지 예약금: \$1500 나머지 출발 30일 전 완불
순례경비: \$2600, 모든 신자와 가족들 참석 가능
주최: 맨하탄성당 울뜨레아, 신청: 미사후 친교실
문의: 김미화 클레어 917-485-0530
*코비드이후 항공 변동으로 인해 신속한 예약 부탁드립니다.

▶**청년회 새신자 등록**

문의: 청년회장 양정운 줌마 카톡 ID:Jcy258



Email:Jclara.yang@gmail.com

또는 청년회 신자등록 큐알 코드에 접속후 등록.
새 청년신자 들은 ▶큐알 코드로 신자등록을 하시어 본당 행사와 청년 단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본인이 한번 보신 주보는 성당에 두지 않고 반드시 가지고 가십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취인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Carolo Kim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B.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은행명 : Chase Bank
 수취인 :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Korean Ministry
 Routing no / ABA no : 021000021
 Checking Account no : 339500161165
 은행주소: 1260 Broadway, New York, NY 1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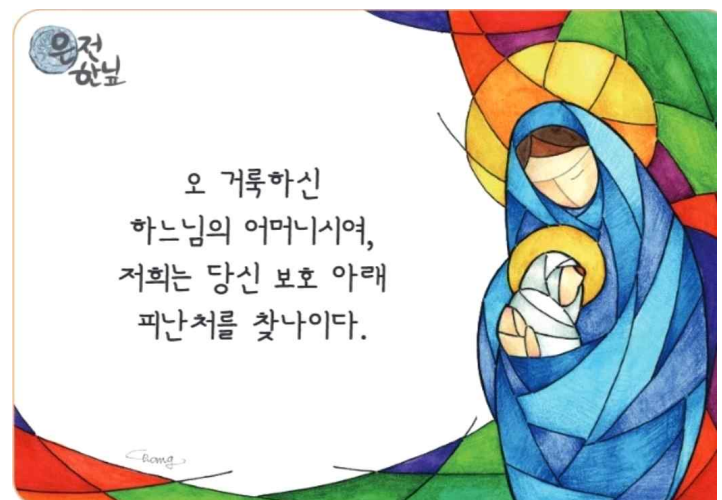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3A
우리즐거움의원천 Pr.	매주 주일 10:30	2D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13:30	3B
청년회	매주 주일 10:30	2A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8:00	Rm(2F)
신명풍물패	2,4 주일 14:00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Rm(2F)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요약)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기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 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1베살 5:1-2) 이 말씀으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공동체를 변함없이 지키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을 굳건하게 뿌리박게 하고 그들의 시선을 주변 세상과 역사의 사건들에 고정하도록 그 공동체를 격려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우리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부분조차 뒤흔들었고 취약함의 여러 형태를 드러낸 듯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깨어지기 쉬운 보물은, 형제자매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류애임을 깨달았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끝났다는 희망을 감히 품었던 그 순간에도 끔찍한 새 재앙이 인류를 덮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죄한 희생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이들만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이차적 영향의 고통을 겪는 이들 사이에서도 모든 이에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찾았지만, 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들이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개별 문제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공중 보건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빈곤과 죽음을 초래하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는 활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에 그리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분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 시급히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면서, 불평등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모든 이를 위한 식량과 품위 있는 노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과 우리 사회들이 내버린 이들을 환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힘입은 이타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관대하게 응답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